

자기자신 내면에서 찾아



② 전문각지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뭘지 찾아 보라” 또는 “어떤 놈이 보고 듣고 하는지 그 놈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놈을 찾으려면 깨달은 것, 부처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찾으라” 또는 “영혼의 존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

각지의 주체를 찾으라는 말이며, 그 놈이란 다른 아닌 우리의 마음, 즉 심식(心識)을 가리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번뇌가 곧 부리(깨달음)’라는 유명한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선과 악, 미(迷)와 오(悟), 가(覺)와 불(覺), 중생심과 불성, 오염심과 청정심, 감성과 이성, 집착과 무집착 등이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마음을 찾는 것이 순서일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욕망에 제들어 지금은 아주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을 제거하면 청정심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또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욕망 등 갖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의 실체를 찾으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어느 것을 발견해도 되지만 역시 1순위는 청정심입니다.

오염된 마음 제거하면 청정심 저절로 드러나 불완전한 언어 사용 않는게 교리 곡해 않는 일

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실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표현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상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존재라면 무얼까? 영혼일까? 불성일까? 영혼과 불성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사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사물을 인식할 줄 아는 주체인 마음을 자각하라” 또는 “그 마음을 성찰하라”는 뜻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는 “부질없이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 또는 “다른 곳에서 깨달음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좀 학술적인 설명입니다만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뭘지 찾아보라”는 이 말의 원문은 ‘전문각지(見聞覺知)’입니다. ‘전문각지’란 눈으로 모양을 보고(見), 귀로 소리를 듣고(聞),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육체로 촉감을 느끼고, 생각(뜻)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覺知)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6식(六識) 작용을 가리킵니다. 6식의 주체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의식입니다. 즉 심식(心識)이 객관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 전문각지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와 혀 육체로 냄새와 맛, 촉감을 느끼지만, 눈과 귀, 혀 등은 단순히 보고 듣는 창구의 역할만 할뿐 그 꽃이 무슨 꽃이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분석·판단하는 능력은 모두 지각기능 즉 의식(意識)이 전담합니다. 따라서 “보고 듣는 놈이 누구인지 그 놈을 찾으라”는 말은 결국 사물을 지각할 줄 아는 그 놈, 즉 전문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뭘지 찾아보라”는 말은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한다면,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영혼을 찾으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영혼을 찾으라는 뜻으로 사용하거나 이해한다면 그것은 절대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불성을 찾으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불성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불성이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속성, 또는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나 인자(因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영혼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성의 정의를 잘 모르는 소치로서 교학적, 학문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불교어와 선어는 모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경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개념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 말 역시 그 일종입니다.

사실 이 말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반문사와 동의어로서 화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혼을 찾으라는 말과 혼동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말로서 불완전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어란 그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물질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소실이 분치를,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 나중에는 엉뚱한 해석이 만연하여 원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잡초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고 곡식은 정성들여 가꾸어도 메마르는 법입니다. 곡식을 잘 기르려고 한다면 먼저 잡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유위법에서 무위법인 화두 참구로 깨달아

② ‘무자’ 화두 타파한 법진 할머니

무자(無字) 화두를 타파한 것으로 알려진 법진(法眞) 할머니는 정쟁한 역대 선사들과 함께 <전등록>에 이름을 올린 여 선객이다.

<전등록>에 따르면 법진 할머니의 성은 허씨요, 송나라 고종 임금 때 사람이다. 남편은 장태(張泰) 부인이라 하였다. 서른 살에 홀로 된 후 불법을 좋아하여 40년 동안 집에서 수행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한번은 도겸 스님을 만나 무자화두를 듣고는 밤낮으로 ‘무자’를 참구하였다. 그러면서 경전도 읽고 예불도 하였는데, 도겸 스님이 대해(大慧, 1089-1163) 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할머니에게 말하였다.

“화두를 참구하려면 경 보고 예불하는 일을 쉬고 일상으로 참구하여 한 생각이 계할한 후에, 다시 경도 읽고 예불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일상으로 참선하였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놀라 깨면서 출현히 깨치고 이런 계승을 지었다.

“꿈속에 봉황 타고 허공에 올라가니/알겠네, 이내 몸이 하룻밤 여관임을/그동안 잘못 배운 한탄(邯鄲: 아름다운 걸음을 걸은 조나라 한탄 사람들) 걸음 알고 보니/한 마리 산새 소리 불비마저 넉넉하네.”

할머니는 이 계승을 대해 선사에게 보냈는데, 대

해 선사는 이렇게 평하였다.

“아들이 재상된 것은 그리 귀할 것 없지만 쓰레 기쁨에서 여의주를 얻은 것은 참으로 귀하니라. 그러나 이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니, 집착하면 다시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느니라.”

한편, <인천보감>에서도 법진 할머니의 수행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여록에 따르면 법진 할머니는 과부가 되고부터는 화장도 안 하고 채식을 하고 현웃을 입고 지냈으나, 유위법(有爲法)만 익혔지 선(禪)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경산사의 대해 선사가 겸(謙) 선사를 보내 안부를 물었는데, 그의 아들 위공(魏公)과 준공(峻公)이

갑자기 깨달은 바 있어 당장 계승할 수를 지어 대해 선사에게 보냈는데, 그 맨 마지막 송은 다음과 같다.

“종일토록 경문을 읽으니/ 예전에 알던 사람 만난 듯 하네/ 자주 막히는 곳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한 번 볼 때마다 한 번씩 새로워진다.”

<전등록>과 <인천보감>의 기록을 볼 때, 법진 할머니는 대해종교 선사의 무자화두 참구법을 통해 깨달았으며, 대해 선사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해 선사는 깨달음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고 끝없이 초월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임(保任) 즉, 불행(佛行)수행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법진 할머니가 유위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행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다가 무위법인 화두참구로 깨달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위법이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만유일체의 법을 말한다. 유위법은 위작(爲作), 조작(造作)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다. 생멸법, 인과법, 인연소생법, 중원취집(衆緣聚集), 공소작법(共所作法) 등이 유위법에 해당된다. 반대로 무위법은 조작, 위작되지 않은 우주만물의 실제, 본체를 가리킨다. ‘만약 법이 생멸도 없고, 멸할도 없고 인(因)도 없고, 과(果)도 없다면, 무위상을 얻으니 이는 무위의 뜻이다(비바사툼)’라고 한 말이 이 뜻이다.

수행은 인위적인 조작이나 분별심, 집착, ‘구하는 마음 없이(無所求行)’ 무위법으로 ‘맑은 바 없이 닦아야(無修之修)’ 한 법도 얻을 바 없는 무소득법(無所得法)의 도리를 깨닫게 된다.

김성우 기자

신행계시판

●제7차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개강=한국위빠사나선원이 6월 16일부터 제7차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개강한다. 16일 오후 2시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5시 30분에 기초과정이 이어진다. 이종숙씨가 강사로 나서 수행에 대한 이론 60분, 경행 30분, 좌선 60분, 명당의 순서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무료에서부터 자유롭게 보시하면 된다. 한국위빠사나선원의 기초과정은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일차림의 힘을 키워주는 수련 과정이다. 계속 일일차림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통한 일일차림의 이점을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02)215-5258

●불광사 경전 강좌 개강=서울 불광사가 6월 16일 기본교육 이차반, 저녁반과 (선아심경)·(선수경) 저녁반을 개강한다. (선아심경)·(선수경) 아침반은 18일 개강 예정이다. 21~22일

구도철야정진 26일 휴천지역으로 6월 문화기행도 마련되어 있다. 28일에는 백승49일 기도입제가 예정되어 있다. (02)413-6060

●영평사 수행형 템플스테이=공주 영평사가 2박3일, 3박4일, 5박6일, 7박8일 등 여러 일정으로 수행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좌선, 경이명상, (선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염불 등을 주로 진행한다. 2박3일 과정에 참여하면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독을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말에는 구절 초 백련차 마시기, 생명의 소리와 함께 하는 108배, 백련꽃길 산책, 사찰음식 맛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상설템플스테이는 매 주마다 1박2일 일정으로 마련된다. (04)857-1584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하는주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상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원인을 알면 막힌 일이 풀립니다.”

* 대자대비관세음보살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기도하시면서 몸소 보고, 듣고, 체험 하십시오

- * 소승은 우리들의 몸에(빙의 되어) 방해 받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맑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영가 천도제) 전문 기도 도량

<관세음 보살님 친견 스님이 천도제 기도 집전>

| | |
|-------------------------------------|--------------------------------|
| ●가출 청소년 귀가지도 | ●이사 후 사건, 사고 잦으신 분(가정불화, 사업부진) |
| ●신내림(무병) 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 ●병원 치료 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애가 있는 분 |
| ●빙의되어 정신이 흐리거나 몸이 아픈 종교인 상담 해 드립니다. | |

* 각종 시험에 계속 낙방 하시는 분 →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득점 대입합격

- ◆본 사찰에서는 영가 천도 기도중에 향 연기와 풍경(바람)소리로 영가 천도의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의 법은 대자연이며 그 법을 만난 인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미술 행화 사사수행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월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창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김병룡)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光)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시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박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